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도 향상 경찰아카데미



광주축산 농협(조합장 안명수) 맏시홍보팀은 최근 광주 광산경찰서 특별 초청을 받아 광산경찰서 대강당에서 경찰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업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 행사에서 시범공연을 가졌다. <광주축산농협 제공>

광주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협약식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광주공동모금회 대회의실에서 무등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금희),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김량)와 연합모금 협약식을 개최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문화마을협회, 국민정신 바로세우기 기증전

사단법인 문화마을협회(이사장 서요한·사진)가 27일부터 28일까지 무안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제1회 국민정신 바로세우기 작품 기증전'을 개최한다. (사)문화마을협회가 주최하고 무안군 문화원과 무안군 노인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증전은 전남도와 무안군이 후원했다. 28일 작품기증 행사에는 우기중 전라남도 정부부지사, 정영수 무안군 노인회장, 백창선 무안군 문화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증전에는 유명 작가의 작품(미술품 12호 규격)에 삶의 지표가 되는 명언을 함께 적은 40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들 작품은 전시 후 무안군 마을회관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등 400여 곳에 기증된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김권필 광주과학기술센터장, 혁신창의인력 토의 참여

김권필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원장은 최근 장성 백양관광호텔에서 열린 '2015년도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분담토의'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들과 대학교수, 참여연구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광주인력양성사업은 석·박사 일자리 창출과 논문 및 특허 생산, 그리고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런 성과에 힘입어 최근 6개 과제를 추가 지원키로 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이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차별화된 사업성과를 일구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국비지원사업인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해오면서 지금까지 과제당 평균 2명의 석박사 일자리를 창출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봉사는 시간 쪼개서 하는 것... 남에게 보탬 됐다면 만족”

20년간 이웃돕기 실천 김원철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봉사활동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만 하더라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하지만 지난 20여년 간 의용소방대원으로서 꾸준히 활동해온 김원철씨(59·광주시 북구 운암동)는 인터뷰를 한사코 거절했다. 27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내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남몰래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들이 하는 일에 비해 보잘것 없는 자신은 신문에 나올 자격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전국의용소방대 광주시연합회장인 그는 지난해 6월 20일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으로 선출됐다. 인근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대원이면서, 평소에는 앞장서 이웃을 돕는 따뜻한 손길을 가진 남성이다. 북구 모 교회 화재(2013년), 북구 용봉동 모

- 화재·사고현장 100회 출동
- 양로원·요양병원 물품지원도
- 2011년 대통령 훈포장 받아

아파트 화재(2013년), 광산구 신창동 헬기추락사고(지난해) 등 인근에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는 끝까지 그곳을 지켰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길과 시꺼먼 연기가 자욱한 화재현장에 서면 두려움이 밀려오게 마련이지만 그는 남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했다. 애타게 구조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로 몸이 사고 현장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그는 “불 속에 직접 뛰어들진 못하지만 현장 교통 등을 정리하고 담요나 따뜻한 차를 제공하면서 화재 피해자들을 돌본다”며 “미



약하지만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식민지 시대 광주 지방제도 분석한 박사논문 나와

윤현석 광주일보 차장, 전남대 대학원 최종 심사 통과

식민지 시기 지방제도 법령, 행정 사례 등을 토대로 당시 광주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 윤현석 광주일보 정치부 차장의 '식민지 조선의 지방단체 광주(光州)에 관한 연구'가 최근 전남대 후기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윤 차장은 이 논문에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에 일본 본토와 특례 지역에서 검증을 거친 지방제도를 이식했고 그 과정에서 통치를 용이하기 위해 제도 변형을 가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과는 광주의 재조선 일본인 기득권이 본토 수준의 자치를 요구, 조선인은 물론 경제력이 취약한 재조선 일본과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래했다고 본

석했다. 즉 식민지 조선의 지방제도는 '자치'와 '기득권'을 주장하였던 재조선 일본인과 '통치'와 '동화정책'을 중시하였던 일제와의 마찰과 갈등, 조율과 타협, 인정과 편입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 일본식 지명이자 자치조직인 정(町)의 대표적인 정총대(町總代)는 식민지 초기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식 지명인 리(里)에는 단순히 지방단체의 행정사무보조 역할을 하였던 명예직 구장이 있었을 뿐이다... 식민지 후기 전시체제에 들어가면서 조선총독부의 독려 속에 광주의 정총대는 정회(町會)로 탈바꿈하면서 지방단체의 세포직, 즉 공식적인 행정조직으로 변모하였다.” 윤 차장은 식민지 조선의 광주의 지방제도

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당시 재조선 일본인이 조선의 지방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지방 통치와 지방행정 행위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식민지 조선의 지방제도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지방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며 “해방 이후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사기관인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 지방자치단체 간 위계 등도 식민지 지방제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오비맥주, 청소년 음주문제 해결

창작연극 '링위의 가족' 무대에

국내 대표 맥주전문기업 오비맥주가 청소년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창작연극 '링위의 가족'을 선보인다.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가족 소통을 통해 청소년 음주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한국매체나협회, 극단 오늘무대와 함께 연극 '링위의 가족'을 공동제작, 29일 오후 7시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백암아트홀에서 처음 막을 올린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오는 9월 18일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창작연극 '링위의 가족'은 주류업체인 오비맥주가 청년음주문제 해결을 위해 벌이고 있는 가족소통 캠페인 '패밀리토크(Family Talk)'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아빠, 엄마, 오빠, 여동생이 마치 링위의 복서들처럼 소통 '배틀'을 하는 모습을 리얼하면서도 코믹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갈등을 겪는 가족들이 상대방의 눈과 고이 이야기하는 눈빛으로부터, 입맞춤과 손맞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정감을 하는 마음맞춤까지 구체적인 소통의 방법들을 재미있는 스토리를 통해 보여준다. 연극 관람은 오는 28일까지 '패밀리토크'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familytalkkorea)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기태 공공예술프로젝트추진위장

광덕중·고등학교 담장미화 마무리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기태 교수가 광덕중·고등학교 담장미화사업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해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위원장으로 위촉된 김기태 교수는 광주시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1년여 기간 동안 '학교 벽 끝으로 디자인하다'는 주제로 광덕중·고등학교 담장 전체를 새롭게 단장했다. /채희중기자 chae@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중천회

▲합암 박씨 동정공 증중 집행부·임원·이사진 3/4분기 하계회의=29일(수) 오전 11시 광주시 남구 백운2동 동정회관 010-7392-5055.

알림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

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 보호.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이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

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무료지원, 장애인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모집

▲조류유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헌신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

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호사랑넷 봉사단=뜻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해교

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수강생=장구, 징, 팽과리, 북 함께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약 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부음

▲김혜정씨 별세 강운(서양화)씨 상배=발인 29일(수) 광주역 장례식장 특4호실 062-264-4444. ▲최귀영씨 별세 김갑순·김태·추자씨 모친상=발인 29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

| | |
|--|---|
| 謹 상가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弔 | |
| 201호故조영님(여/66세) 子/子婦: 윤경진/송미라, 경민/배종영 女/婿: 윤영화/차성주 | 401호故기은자님(여/53세) 女/婿: 장다솜 夫/婦: 정운문 兄弟: 기홍조, 세진, 세민, 은희 * 발 인: 7월 28일 * 장 지: 영락중원 |
| 402호故이남재님(남/58세) 子: 이지환 女: 이지연 未亡人: 유남희 * 발 인: 7월 28일 * 장 지: 영락중원 | 101호故정성민님(남/72세) 子/子婦: 정주상/이인인 女/婿: 정주희/김석진, 주만/조영래, 주미 * 발 인: 7월 29일 * 장 지: 동복선영 |
| 102호故이영민님(남/68세) 子/子婦: 이경호/김나영, 경민/조성희 女/婿: 이경란/차영철 未亡人: 민현란 * 발 인: 7월 29일 * 장 지: 영락중원 | |
|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 |